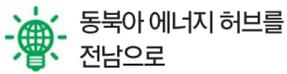


# 여수·광양만권에 동북아 LNG허브 구축을



## <3>글로벌 에너지허브 경쟁력

정부가 최근 공개한 '제 3차 에너지기본 계획(안)'의 핵심은 신재생에너지 발전비중을 오는 2040년까지 최대 35%로 끌어 올린다는 목표를 제시했다는 것이다.

석탄의 경우 '발전용 에너지원으로 역할을 과감하게 축소하겠다'고 밝히는 한편, 천연가스에 대해서는 '발전용 에너지원으로서의 역할을 확대하면서 수요처를 다변화'하겠다는 입장 등이 담겼다.

전남이 '글로벌 에너지 허브(hub)'로의 도약을 준비하는 만큼 '액화천연가스(LNG) 허브' 구축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이기도 하다.

특히 한국이 일본, 중국과 함께 전 세계 LNG 소비량의 60% 이상을 차지하는 세계 3대 LNG 수입국(국제가스연맹 보고

한·중·일, 세계 소비량 60%... 2040년까지 발전량 증가 전망  
안정적 물량 확보·시장거래 활성화 위한 가격 규제 완화 필요

서)인데다, 오는 2040년까지 가스의 연평균 발전량 증가율이 신재생에너지에 이어 두번째로 높을 것이라는 전망(미국 에너지정보청)이 제시된 점 등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지난 2월 여수에서 열린 '에너지 전환을 통한 여수산단 경쟁력 강화' 세미나에서도 이같은 점을 감안, 중국과 일본을 잇는 여수·광양만권에 동북아 LNG 허브 구축을 선점하는 중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LNG 허브는 대규모 LNG 가스 인수·저장시설·물류·금융·가스 거래와 관련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국제중심지로, 동북아시아의 경우 세계 최대 LNG 소비지역에도 미국과 유럽처럼 거래시장이 없는 실정이다.

이미 일본은 지난 2016년 G7 에너지장관회의 등을 통해 '일본에 국제 LNG 허브

를 구축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는 등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 때문에 타 지역보다 비싼 가격에 LNG를 공급받는 등 가격 결정 방식에 대한 개선을 위해서는 LNG 허브 구축이 절실하다는 게 전문가들 지적이다.

전문가들은 '동북아 슈퍼그리드'와 함께 LNG 수요 급증 등 세계 에너지 시장의 급속한 변화에 적극 대응하는 게 격변하는 에너지 신산업 시대에 미래 성장을 주도할 수 있다고 입을 모은다.

신동훈 광주전남연구원 책임연구위원도 지난 2월 열린 여수 세미나에서 "LNG 가격 결정 방식을 바꾸기 위한 LNG 허브 구축이 절실하다"면서 "동북아 LNG 허브를 선점, LNG 저장시설에만 머물지 않고 국제적인 거래, 현물시장 거래 가격지표 등 종합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트레이딩 허브

로 육성해 나가야 한다"고 제안했다.

전남에서 LNG 허브 조성지로 꼽히는 지역은 여수 모도로, 광양만권 중심에 위치하며 선박 출입이 용이한 항만·항로 조건을 갖추고 넓은 부지에 인근 국가산단 등 가스 수요처가 밀집해 있으며 가스 수요자 확보도 수월해 'LNG 허브' 최적의 조건을 갖췄다는 게 전문가들 주장이다.

신 연구위원은 "모도는 중국과 일본 수요지의 중간 지점에 위치해 있어 동북아 LNG 허브 터미널로 가장 적합하다"면서 "여수 국가산단에서 운영 중인 여수 오일 허브와 연계, 동북아 에너지 허브를 구축하고 거대한 에너지 산업 클러스터로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적극 나설 수 있도록 전남도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목소리도 높다.

모도 일대를 LNG 허브로 육성하는 데는 가스 가격 규제 완화를 통한 가격 및 물량 확보의 안전성, 시장 참여자 쌍방 거래 활성화를 위한 정부 역할이 중요하다는 점에서도. <끝>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 장흥에 최대 수소연료전지발전소 짓는다 도-아이티에너지 컨소시엄...2023년까지 1조2천억 협약

아이티에너지(주)와 한국서부발전(주)가 컨소시엄을 구성, 2023년까지 1조2000억원을 투자해 장흥산단 7만 5213㎡ 부지에 200MW 규모의 LNG 수소 연료전지 발전소를 건립한다. 이는 국내 최대 수준의 연료전지 발전 사업이다.

전남도는 지난 26일 롯데호텔서울에서 대규모 투자유치설명회를 개최하고, 국내 최대 수준의 연료전지 발전사업을 포함한 1조2000억원대의 투자협약을 체결했다. 투자설명회에는 김영록 전남지사

와 김형국 GS칼텍스 사장, 박익용 에어리퀴드 코리아(주) 대표 등 수도권 CEO 400여 명이 참석해 주목을 받았다.

이날 행사에서 전남도는 에너지신산업의 미래비전으로 '글로벌 에너지신산업

허브, 전남'을 대내외에 공표했다. 한국전력공사, 전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 전남테크노파크,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은 각 분야별, 기업 규모별, 단계별 지원 방안을 내놓았다.

국내 최대 규모의 연료전지발전소에 이어 어업회사법인 솔트인솔트(주)는 신안 11만9008㎡ 부지에 144억원을 투자해 스마트 염전 및 해수 치유 시설을 조성하기로 했다. 태양광 및 ESS부품 제조업체인 디케이이앤에스(주)는 나주 혁신산단 7천959㎡ 부지에 70억원을, 콘텐츠 개발 및 응용소프트웨어 제작업체인 (주)씨엔씨네트웍스는 나주 콘텐츠기업육성센터에 30억원을 각각 투자한다. /윤현석 기자 chadol@

## 권오봉 여수시장·정현복 광양시장, 민주당 이석형 전 군수 탈당 경력 3번... 두번째 복당 보류

더불어민주당의 '복당'에 대한 논란이 커지고 있다. 복당에 대한 뚜렷한 원칙과 지역 당원들의 의사가 반영되기 보다는 내년 총선을 위한 당세 확장과 정치적 이해 관계가 우선 작용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역 정치권에서는 당세 확장을 위해 기초단체장들의 복당은 이해할 수 있지만, 2번 이상 탈당 전력이 있는 복당자에 대해서는 복당을 불허해야 한다는 게 중론이다.

민주당은 지난 26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권오봉 여수시장과 정현복 광양시장의 복당을 최종 의결했다. 이에 앞서 민주당 당원자격을 심사위원회는 지난 23일 전 시장과 정 시장의 복당을 허용했지만, 지역 당원들의 반발이 거세지면서 이날 최고위원회의의 결정을 주목받았다.

권 시장은 지난해 6·13 지방선거에서 당내 경선에 나섰다가 중도 하차한 뒤 탈당해 무소속으로 당선됐다. 2010년 탈당한 정 시장은 지난 2차례 지방선거에서 무소속으로 당선된 바 있다.

이제야 두 번째 복당 보류 결정이다. 이에 따라 지역 정치권에서는 중앙당이 '복당 보류'라는 애매한 입장보다는 보다 명확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는 게 중론이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복당을 남발하면 당원들의 반발을 넘어 광주시민의 반발도 확산시킬 것"이라며 "지도부가 지금이 바로 보다 엄격하게 복당 심사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임동욱 기자 tuim@

복당이 가능하다는 규정(당규 제2호, 11조3항)에 따라 박 군수의 복당을 허용했다. 또 정치적 이해 관계도 작용했다. 민주당 모 최고위원은 "당초 박우량 군수에 대해 관계가 우선 작용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역 정치권에서는 당세 확장을 위해 기초단체장들의 복당은 이해할 수 있지만, 2번 이상 탈당 전력이 있는 복당자에 대해서는 복당을 불허해야 한다는 게 중론이다."

이런 가운데 이석형 산림조합중앙회장의 복당 여부에 지역 정치권이 주목하고 있다. 이 회장은 2004년과 2013년에 탈당한데 이어 2014년에는 산림조합중앙회장 선거를 이유로 탈당하는 등 무려 3차례의 탈당 경력이 있기 때문이다. 당장, 광주 광산구 시의원과 구의원들이 이 회장의 복당 반대 성명서를 내는 등 집단 반발하고 있다. 이같은 상황을 감안, 민주당 최고위는 지난 23일 이 회장에 대해 복당 보류 처분을 내렸다. 지난 3월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 복당 보류 결정이다.

이제야 두 번째 복당 보류 결정이다. 이에 따라 지역 정치권에서는 중앙당이 '복당 보류'라는 애매한 입장보다는 보다 명확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는 게 중론이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복당을 남발하면 당원들의 반발을 넘어 광주시민의 반발도 확산시킬 것"이라며 "지도부가 지금이 바로 보다 엄격하게 복당 심사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임동욱 기자 tuim@



지난 27일 목포와 부산(388km) 간 무궁화호 '느림보 열차 한나절 체험'에 나선 김영록 전남지사가 부산 종착역인 부산역에서 오거돈 부산시장을 비롯해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김영록 전남지사 “‘느림보’ 경전선, 전철화 꼭 이루겠다”

목포~부산 6시간33분 체험... 2023년 개통 촉구

김영록 전남지사가 지난 27일 전남의 열악한 기반시설(SOC)을 상징하는 경전선(388km)의 '느림'을 체험하기 위해 목포에서 무궁화호에 탑승해 6시간33분만에 부산에 도착했다.

김 지사는 경전선 전철화 필요성 국민 공감대를 확산하고, 호남고속철도 2단계(목포-광주 송정) 2023년 개통을 촉구하기 위해 직접 경전선 체험에 나섰다.

28일 전남도에 따르면 이 열차는 목포에서 출발해 광주송정역, 보성역, 순천역을

거쳐 부산에 도착하기까지 42개 역에 정차한다. 광주에서 순천까지 117km는 일제강점기인 1930년 건설된 이후 한 번도 개량되지 않고 그대로 사용되고 있다. 이 때문에 서울에서 광주 간 304km를 KTX가 1시간 33분 만에 주파하는 것과 견줘 3배나 더 걸리는 '느림보 철길'이다.

이날 행사에는 김 지사와 전남도 도민 명예기자단, SNS 서포터즈단, 민원메신저, 생활공감 모니터단, 청년의 목소리, 전남도립대 학생, 전문가 패널 등 각계각

층을 대표하는 전남도민 170여 명이 참여했다.

열차 안에서는 '전남 관광객 6천만 시대를 연다'를 주제로 토크콘서트도 열려 참여자들이 소감과 사연 등을 소개했다. 체험 과정은 경전선 전철화 필요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위해 전라남도 누리집 유튜브를 통해 생중계했다.

김 지사는 "이번 체험행사를 계기로 경전선 전 구간의 전철화가 조기에 이뤄져 남해안지역 공동 번영과 국가경제 발전을 이끄는 디딤돌이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

샵니다

전국 임야/단독섬

지분물건환영.010-6834-7400

교 환 전문

빌딩/토지/임야 등 모든 부동산

정확/신속처리.010-3605-5000

### 부실채권 못받은 돈 회수

판결문, 공증·공사대금·각서·운송료  
차용증·거래장부·계약서·입금 내역  
녹취등 각종채권상당

▶ 절대 수수료, 출장비용 없음 ◀  
(재산조사비, 법적비용은 필요에 따라 발생될 수 있음)

- 채무자 재산, 신용·주거래은행·차량등 파악
- 실거주지파악가능
- 법인회사 부도시 회수 가능
- 전국 68개 점포로 전국가능

▶ 국가신용관리가 직접관리 ◀

신수금만 주고 돈도 못 받고 계신분들이 많으나 당사는 여러분의 재산을 회수한 후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당사는 내게산이다라는 마음으로 항상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4시간 상담가능)

NAVER 채권추심 회수왕

### 새한신용정보(주)

010-6833-1600  
직통전화 062)513-4306

### 금당공인중개사

저희는 매도·교환·개발 등의 물건을 구합니다!

팬션·전원주택지

- 무안군 해제면 바다 150m거리 대지 790㎡ 3800만원
- 담양군 월산면 월계리 추월산 가는 길 2268㎡ 1억5800
- 신안 지은면 한우리 해수욕장 접 1654㎡ 별장 등 복합 분할가능 평당65만원
- 영광 백수해안도로 칠산바다 전망 좋은 1130㎡ 1억2천

투자·매도·교환

- 무안군 망운면 피서리 답 3818㎡ 투자기치 양호 1억5천
- 남구 방림동 주거지역 1420㎡ 다세대·원룸 적합 16억4천
- 곡성 임면 매실밭 13000㎡자연인생활적합 신고는 2억5천 매도 1억2천
- 월산동 월산아파트 부근 1084㎡ 원룸·다세대 적합 8억7천
- 영암 삼호읍 용당리 공업지역 6019㎡ 은행 2억3천 매도 4억2천
- 운암동 아파트 지하 205㎡ 은행8천 교환가능 1억8천
- 강진 성전면 월산산 밑 4차선접 4630㎡ 대형저수지 인근노인병원·시설 적합 5억
- 김양 금성면 추월산 가는 길 땅 808㎡ 커피숍·식당 적합 3억4천

상가건물

- 함평 염산면 바다 접 땅 1280㎡ 건평 183㎡ 식당·노래방 3억5천
- 충장로 47㎡ 땅 261㎡ 건물 1128㎡ 은행 11억 전세 1억8천 월 1000.25억
- 서석동 4층상가 조대 앞 땅 405㎡ 건평 919㎡ 보종금 6천 월 280 임대 중 12억
- 백운동로타리와 대성로타리 사이 대로변 땅 258㎡ 건물 265㎡ 8억
- 월산동 무진중 부근 버스도 접 토지 155㎡ 건물 4층 263㎡4억천
- 월산동 주민센터부근 도로코너 땅 227㎡ 상가주택 357㎡ 매도 5억8천

특급물건

- 광산구 송학동 땅 43278㎡ 사찰있음, 남광당·복지시설 적합 15억
- 무안군 운남면 바다인접 11607㎡ 요양시설·전원주택 적합 4억3천
- 장흥군 수문해수욕장 2346㎡ 펜션·노인·요양시설 등 적합 -일부는 광주 원룸부지와 교환 가능 4억7천
- 북구 용두동 6차선접 4899㎡ 물류창고 등 다용도 적합 45억
- 순천 낙안면속마을 저수지 옆 펜션 대지 2180㎡ 펜션3동 372㎡ 8억
- 북구 북동 금남로 57기여 대로접 중심상업지 364㎡ 사옥 등 적합 12억

문의 222-4994, 010-2632-5659  
서구한전, 농성초교옆문앞

## 신창동 근린상가

- ✓ 광산구 신창동, 가도빌딩 (전남공업고 옆 사거리 코너)
- ✓ 대지지분 52평, 건물 170평
- ✓ 4층중 2층 201호 전체, 준주거지역
- ✓ 주위에 고등학교/대학교 단독주택
- ✓ 아파트 상업용건물등 혼재, 위치좋은
- ✓ 보증금1억에 월400만원 임대가능
- ✓ 감정/시세-11억

매매-8억 8천만원(일시불 조정가능)  
문의. 010-6834-7400

광주광역시 동구 공고 제2019-535호

### 동구 도시재생 뉴딜사업 활성화계획(안) 공청회 개최 공고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0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라 광주광역시 동구 도시재생 뉴딜사업 활성화계획(안)에 대해 주민과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수렴을 위한 공청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코자 공고합니다.

2019년 4월 26일  
광주광역시 동구청장

1 개최목적

도시재생 뉴딜사업 활성화계획(안)에 대한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 수렴

2 개최일시

2019. 5. 13. (월) 15:00

3 장 소

푸른마을공동체센터 3층 다목적실

4 사업별 주요내용

사업명	위 치	면적 (㎡)	사업기간	사업비 (억원)	비고
문화가 빛이 되는 동명마을 만들기	동명동 245-16번지 일원	104,705	2019~2022 (4년간)	200	
인생의 거리 일원 활성화 도시재생 뉴딜사업	금동 102-6번지 일원	193,387	2020~2024 (5년간)	300	
조선대 일원 대학타운형 도시재생 뉴딜사업	서석동 426-1번지 일원	159,891 (1,208,056)	2020~2023 (4년간)	200	(대학 면적 포함)

5 주민의견 제출

가. 의견이 있는 주민 또는 관계 전문가 등은 공청회에 참석하여 직접 의견을 진술하거나 서면으로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의 요지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나. 서면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의견의 요지는 불문의 의견서 양식을 참조하여 2019.5.14. (화)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기타사항

가. 본 도시재생 뉴딜사업 활성화계획(안) 공청회 공고는 동구의 사업 추진 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의견수렴 및 관련 절차 결과에 따라 수정·보완 될 수 있습니다.  
나.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광주광역시 동구청 도시재생과(☎ 062-608-2792, E-mail: lee8615@korea.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